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목 차

■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Executive Summary	i
1. 한·아세안 교류 30년	1
2. 아세안 경제 현황	2
3. 한·아세안 경제 협력 30년	7
4.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15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 한·아세안 교류 30년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 및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관계도 확대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한-아세안의 경제 교류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세안 경제 현황

아세안 국가들은 **교역 규모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아세안 경제는 **지난 30년간 견실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2019년 연평균 5.3%로 세계 경제성장률 연평균 3.8%를 상회했으며, 세계 GDP 중 아세안 10개국이 차지하는 GDP 규모는 1990년 1.6%에서 2019년 3.6%로 확대되었다.

(교역) 아세안의 **총 교역 규모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싱가포르의 높은 교역량이 아세안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 교역보다 중국, 미국 등 역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게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최근 2~3년간 급증한 가운데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금액 비중이 컸다**. 2013~2018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얀마에서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노동력) 아세안 지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생산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아세안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중위연령은 각 69%, 29.3세로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아세안 국가의 평균 임금 및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한·아세안 경제 협력 30년

(교역)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은 지난 30년간 규모가 매우 커졌고, 교역 상품 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1990년 103억 달러에서 2018년 1,597억 달러로 증가했다. 동기간 한국의 총 교역 중 아세안과의 교역 비중도 7.7%에서 14.0%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선진 경제권 개별국(미국, EU, 일본)을 능가하는 수출 시장으로 등극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對아세안-5 교역 비중이 86%에 이르고 특히 베트남과의 교역은 2018년 對아세안 교역 중 43%에 달하고 있다. 교역 상품은 과거에는 원자재를 주로 수입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등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품 은 지난 30여년간 반도체, 철강판 등 제조업 제품이 여전히 상위에 올라 있다.

(투자)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종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 2.6억 달러에서 2018년 61.4억 달러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 제조업 투자에 편중되었으나 최근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투자 업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되고 있다. 한편 아세안 국가의 對한국 투자 규모도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투자 규모는 1990년 1,419.9만 달러에서 2018년 15.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아세안 국가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는 과거 제조업에서 최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적교류) 2011년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출입국 교류는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입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입국 외국인 중 아세안 국적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8.9%에서 2019년 16.3%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국내 출국 내국인 중 아세안국가에 방문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30% 내외를 유지하여 크게 확대되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자 측면에서 2013년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취업 교류는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취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아세안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상회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55.7%에서 2018년 58.8%로 소폭 확대되었다. 한편 내국인이 아세안국가에 취업하는 인원은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전체 해외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모습

이다.

(경제 교류 개선 사항) 30년간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 모두 규모 측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일부 국가 및 일부 항목에 편중된 점은 개선할 사항이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對아세안 흑자 비중이 60%에 달했다. 또한 對아세안 교역 중 對베트남 교역 비중은 2018년 43%이다. 해외직접 투자는 베트남 및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편중은 이들 국가 경제가 취약해 질 경우 한국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한·아세안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교류는 관광 및 비숙련노동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경제 회복에 활력을 더해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한류 등 한국만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 전체적인 시장 및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장 공략 전략 수립을 세우고 활용해야 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교역 및 투자 경향을 완화하여 해당국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분산해야 한다.

1. 한·아세안 교류 30년

-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30여년간 경제·정치적 교류를 확대
 -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동남아시아 역내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 및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를 의미함
 - 1967년 8월 8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5개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ASEAN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되었고,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1997),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차례로 가입하여 10개국으로 확대됨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관계도 확대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을 수립하였고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관계가 격상됨
 - 1997년에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3)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함
 - 더불어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를 수립
 - 이후 한-아세안간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아세안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짐
- 본고에서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함

2. 아세안 경제 현황

○ 아세안 10개국은 높은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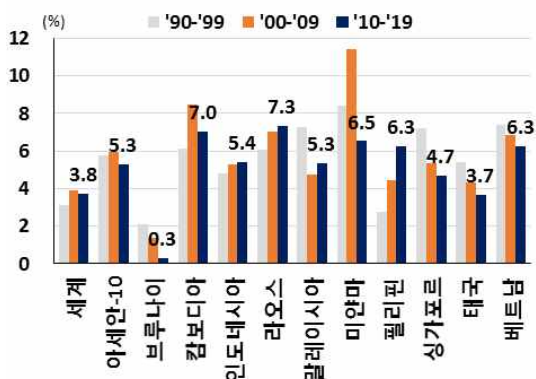
- 아세안 국가의 경제는 지난 30년간 견실하고 빠르게 성장

-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2019년 연평균 5.3%로 세계 경제성장률 연평균 3.8%를 상회
-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경제 개방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
- 다만, 석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브루나이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

- 세계 GDP 중 아세안 10개국의 GDP 규모는 1990년 1.6%에서 2019년 3.6%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위상 제고

- 아세안 10개국의 GDP 규모는 1990년 3,750억 달러에서 2019년 31,118억 달러로 확대
-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GDP 규모는 11,117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GDP 규모의 약 1/3을 차지

< 아세안 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 주1) 2018년, 2019년은 추정치.
- 주2) 아세안-10은 10개국 단순평균.
- 주3) 기간별 단순 연평균.

< 아세안 GDP 규모 및 비중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 주1) 2019년은 추정치.
- 주2) GDP는 명목달러 기준.

○ 아세안의 총 교역 규모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높은 교역량이 아세안 전체의 성장을 견인

- 아세안의 총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8년간 꾸준히 상승

- 아세안의 총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9년 9,844억 달러에서 2018년 18,17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
- 전 세계에서 아세안의 총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2%에서 2018년 7.3%로 지속적으로 상승

- 아세안 국가 중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 및 GDP 대비 교역 비율 모두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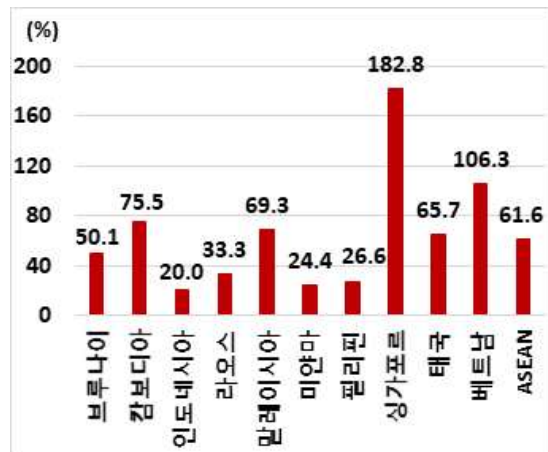
- 아세안 국가 중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싱가포르(6,348억 달러), 태국(3,318억 달러), 베트남(2,598억 달러), 말레이시아(2,456억 달러), 인도네시아(2,087억 달러) 순으로 큼
-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교역 규모 비율 역시 싱가포르(182.8%)가 가장 높고, 베트남(106.3%), 캄보디아(75.5%), 말레이시아(69.3%)가 그 뒤를 따름
- 아세안 전체의 GDP 대비 교역 비중은 61.6% 수준

< 아세안 재화와 서비스 교역 규모 및 전 세계 차지 비중 추이 >



자료 : UNCTAD.
주 : 교역은 수출과 수입의 합.

< 아세안 국가별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교역 비율 >



자료 : UNCTAD.
주1) 2018년 기준.
주2) 교역은 수출과 수입의 합.

○ 아세안은 역내 교역보다 역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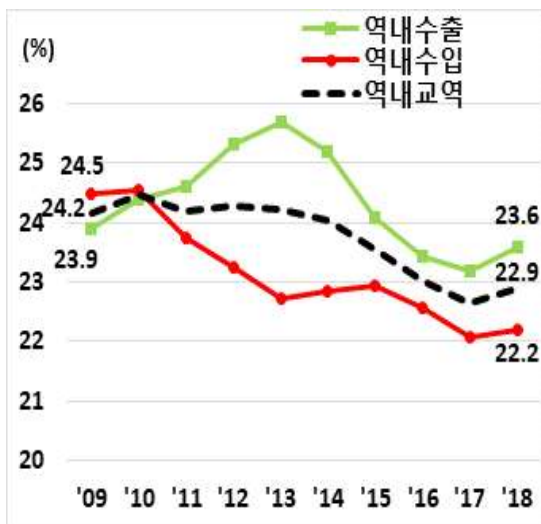
-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은 무역 장벽 철폐 및 관세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2009~2018년간 완만히 축소

-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은 2009년 24.2%에서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7년 22.6%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 22.9%로 상승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상품무역협정 등을 통하여 역내 무역 장벽 철폐 및 관세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이 특징적

- 아세안 국가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미국 등이며, 교역 규모가 가장 작은 라오스의 경우 수출입의 대부분을 역내 국가인 태국에 의지

- 아세안 국가 중 교역 규모가 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중국, 미국 등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큰 편
- 반면, 규모가 가장 작은 라오스의 경우 가장 큰 수출입 대상국이 태국으로 역내 교역에 크게 의지

<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 추이 >



자료 : UNCTAD.
주 : 교역은 수출과 수입의 합.

< 아세안 국가별 주요 수출입 대상국 >

국가	수출대상국	수입대상국
브루나이	일본(34.7%)	중국(39.4%)
캄보디아	미국(22.7%)	중국(35.1%)
인도네시아	중국(15.1%)	중국(23.7%)
라오스	태국(41.6%)	태국(59.3%)
말레이시아	중국(14.5%)	중국(20.1%)
미얀마	중국(34.9%)	중국(33.6%)
필리핀	미국(15.6%)	중국(18.7%)
싱가포르	중국(12.3%)	중국(13.4%)
태국	중국(12.0%)	중국(19.9%)
베트남	미국(19.7%)	중국(28.3%)

자료 : ADB.
주1) 2018년 기준.
2) 괄호 안은 전체 수출입 중 차지하는 비중.

-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최근 2~3년간 급증한 가운데 싱가포르 등 국가로 유입된 금액 비중이 크며,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감소
-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2~3년간 급증하였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유입된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
 - 아세안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16년 1167.6억 달러에서 2017년 1,441.7억 달러, 2018년 1,486.5억 달러로 급증
 - 아세안으로 유입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2018년 기준 싱가포르로 유입된 비중이 52.2%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14.8%), 베트남(10.4%)이 그 뒤를 따름
- 2013~2018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
 -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3~2018년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25.3%, 베트남은 11.7% 증가
 - 한편, 미얀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규모는 작지만(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4.6% 수준), 2013~2018년간 연평균 43.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2013~2018년간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율은 각각 -7.8%, -7.5%로 감소세를 보임

<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
아세안 전체	1181.3	1293.6	1142.3	1167.6	1441.7	1486.5	100.0
브루나이	7.8	5.7	1.7	-1.5	4.6	5.0	0.3
캄보디아	20.7	18.5	18.2	24.8	27.9	31.0	2.1
인도네시아	188.2	218.1	166.4	39.2	205.8	219.8	14.8
라오스	4.3	7.2	11.2	10.0	16.0	13.2	0.9
말레이시아	121.2	108.8	100.8	113.4	94.0	80.9	5.4
미얀마	5.8	9.5	28.2	29.9	43.4	35.5	2.4
필리핀	22.8	52.8	44.5	69.2	87.0	64.6	4.3
싱가포르	566.7	732.9	597.0	738.6	757.2	776.5	52.2
태국	154.9	48.1	56.2	18.2	64.8	104.9	7.1
베트남	89.0	92.0	118.0	126.0	141.0	155.0	10.4

자료 : UNCTAD.

주 : 비중은 2018년 기준.

○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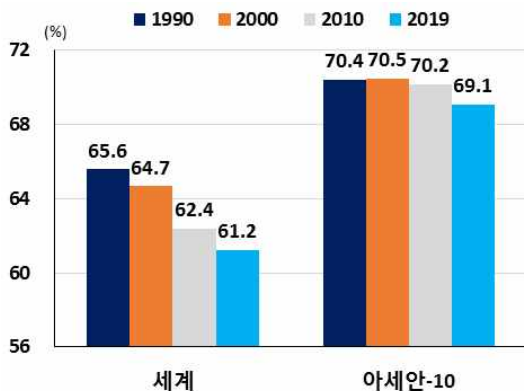
- 아세안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중위연령은 각각 69% 및 29.3세로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보유

- 아세안 10개국의 경제활동참가율¹⁾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약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은 수준
- 중위연령 또한 2015년 기준 29.3세로 세계 평균 29.6세, 한국 40.8세, 중국 36.7세, 일본 46.4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젊은 수준

-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아세안 국가의 최저임금 및 평균 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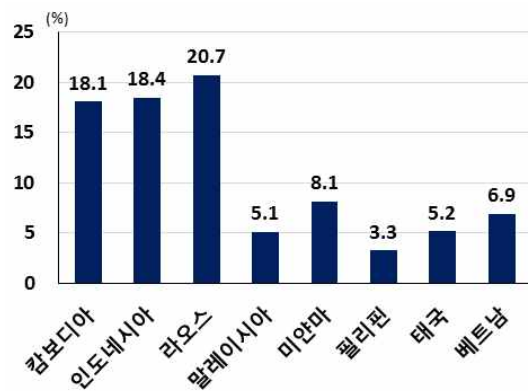
- 아세안 지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생산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 그러나 최근 5년간 아세안 국가의 최저임금²⁾ 연평균 상승률은 라오스 20.7%, 인도네시아 18.4%, 캄보디아 18.1%, 미얀마 8.1% 등으로 크게 상승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평균 임금 또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

< 아세안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자료 : ILO.
주 : 아세안-10은 10개국 단순평균.

< 아세안 최저임금 상승률 >



자료 : ILO, AseanBriefing.
주1) '11~'16년 중(말레이시아는 '12~'16년) 연평균 상승률(CAGR).
2) 최저임금이 구간인 국가는 중간값 활용.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체 인구 중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2)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의무가 없는 국가이며, 말레이시아는 2012년 최저임금제를 도입.

3. 한·아세안 경제 협력 30년

① 교역

○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은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

-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확대되며 2018년 연간 1,597억 달러 규모를 달성

- 1990~2018년간, 한국의 총수출 및 총수입 총액 중 對아세안 비중은 각각 8.0%에서 16.6%로(수출), 7.3%에서 11.1%로(수입) 확대
- 동기간,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597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
-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표를 계기로 2007~2018년간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7.5%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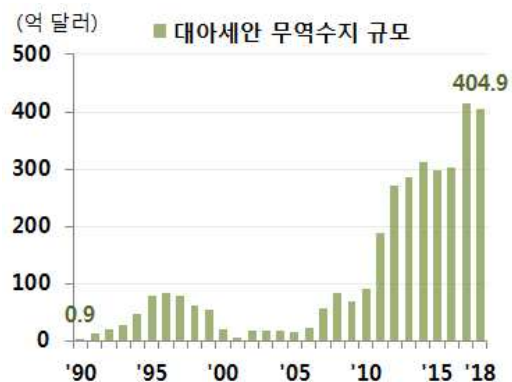
- 한국의 對아세안 무역수지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 발생

- 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99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8년 405억 달러로 확대
- 2018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약 700억 달러 중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는 60%를 차지함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추이 >



< 한국의 對아세안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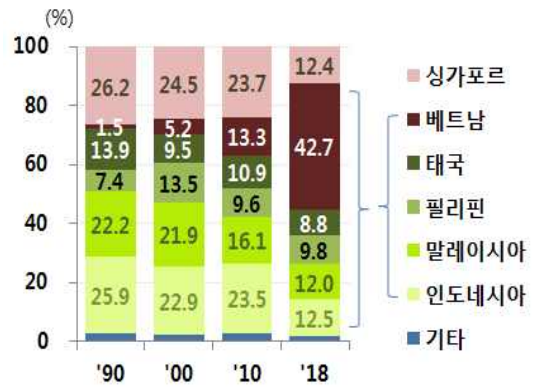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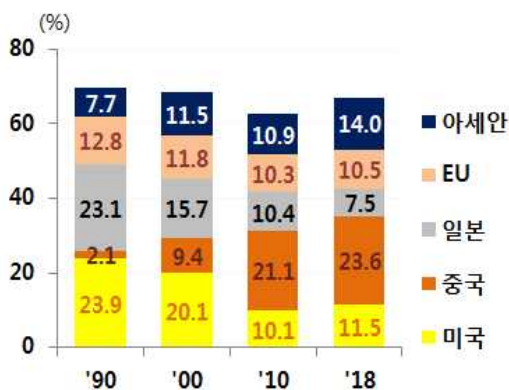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총교역 중 아세안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과의 교역 비중이 최근 크게 확대

- 최근 10여년간 한국의 총교역 중 對아세안 교역 비중은 크게 확대
 - 1990~2018년간, 한국의 선진국(미국, 일본, EU)에 대한 교역 비중은 축소
 - 동기간,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교역 비중은 확대
 - 對아세안 교역 비중은 2018년 14.0%로 확대되어 선진 경제권 개별국 및 개별권역(미국 11.5%, EU 10.5%, 일본 7.5%)을 능가하는 수출 시장으로 등극
 - 특히 2010~2018년간 對아세안 교역 비중 확대폭(3.1%p)은 對중국 교역 비중 확대폭(2.5%p)보다 두드러짐
- 한국과 아세안 각국가와의 교역은 아세안-5 국가들에 치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크게 확대
 - 1990~2018년간 기준 對아세안 총교역 중 對아세안-5³⁾ 교역 비중은 70.9%에서 85.8%로 확대
 - 특히, 동 기간 對아세안 총교역 중 對베트남 교역 비중은 1.5%에서 42.7%로 괄목할 정도로 확대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교역 비중 > < 한국의 對아세안 개별국 교역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주 : 기타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포함됨.

3) 아세안-5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싱, 베트남, 필리핀 등이 포함됨.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중심

-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은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및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등이 상위를 차지
 - 1990~2018년간, 한국의 對아세안 반도체 수출액은 7.1억 달러에서 213.8억 달러로 대폭 증가
 - 2010년 5대 수출 품목 리스트에 없었던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2018년 91.8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상위 3대 수출 품목에 등극

< 한국의 對아세안 상위 5대 수출 품목 >

(단위 : 억 달러, (%))

순 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7.1 (13.6)	반도체	59.7 (29.6)	석유제품	83.3 (15.7)	반도체	213.8 (21.4)
2	철강판	3.3 (6.4)	석유제품	10.1 (5.0)	반도체	77.1 (14.5)	석유제품	113.0 (11.3)
3	컴퓨터	2.6 (5.0)	전자관	7.6 (3.8)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41.8 (7.9)	평판디스플레이 이및센서	91.8 (9.2)
4	인조장 섬유직물	2.6 (4.9)	무선통신기기	6.7 (3.3)	철강판	32.3 (6.1)	철강판	36.2 (3.6)
5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2.2 (4.2)	합성수지	6.3 (3.1)	합성수지	19.7 (3.7)	합성수지	32.8 (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주1)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2) 금액 밑의 괄호()는 총수출 중 해당 품목 수출 비중.

-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입 품목은 과거에는 원자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등 제조업 중심
 - 1990년 한국의 對아세안 수입 품목 중 원유, 목재류,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 상위 3대 품목에 위치
 - 1990~2018년간, 한국의 對아세안 반도체 수입액은 3.5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로 증가
 - 천연가스 및 석탄은 여전히 對아세안 상위 5대 수입 품목에 위치함

< 한국의 對아세안 상위 5대 수입 품목 >

(단위 : 억 달러, (%))

순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원유	12.6 (24.5)	반도체	35.7 (19.6)	반도체	75.8 (17.2)	반도체	61.0 (10.2)
2	목재류	8.1 (15.8)	컴퓨터	28.1 (15.4)	원유	54.6 (12.4)	무선통신기기	52.6 (8.8)
3	천연가스	4.6 (9.0)	천연가스	25.5 (14.1)	천연가스	54.2 (12.3)	의류	50.8 (8.5)
4	석유제품	4.1 (8.0)	원유	18.8 (10.3)	석탄	32.2 (7.3)	천연가스	36.5 (6.1)
5	반도체	3.5 (6.8)	석유제품	11.9 (6.5)	석유제품	21.3 (4.8)	석탄	26.7 (4.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주1)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2) 금액 밑의 괄호()는 총수출 중 해당 품목 수출 비중.

② 투자

○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종도 점차 다양화

-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 중 아세안 비중은 점차 축소

-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 2.6억 달러에서 2018년 61.4억 달러로 약 23배 증가
- 아세안 10개국 중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2000년대 들어 베트남으로 전환
- 다만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아세안 비중은 2010년 17.4%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 축소되면서 2018년 12.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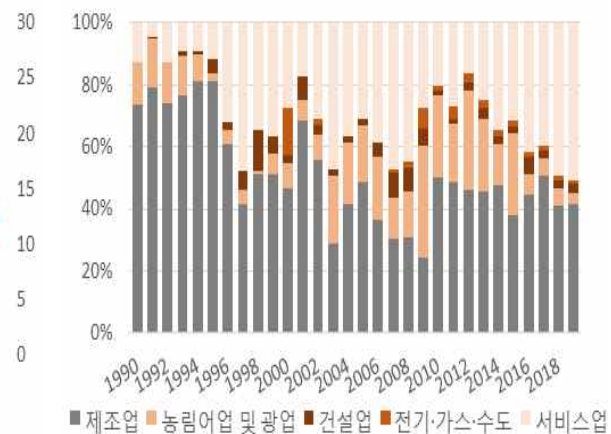
-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제조업에 편중되었으나 최근 서비스업이 확산되면서 투자 업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음

- 아세안 지역의 제조업 투자 비중은 1990년 73.7%에서 2018년 40.9%로 32.8%p 축소됨
- 한편 서비스업은 동기간 12.5%에서 49.3%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투자 규모가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의 약 절반을 차지

< 한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 > < 아세안 지역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
(억 달러)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투자금액 기준.

○ 한편 아세안 국가의 對한국 투자 규모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아세안의 對한국 투자 규모는 추세적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규모 중 아세안국가의 비중은 약 8%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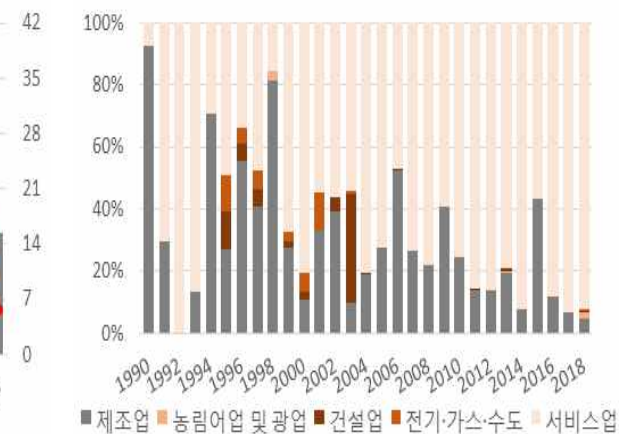
- 아세안의 대 한국 투자 규모는 1990년 1,419.9만 달러에서 2017년 35.6억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8년 15.3억 달러로 감소
- 2010년 이후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아세안의 비중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8.3% 수준으로 보임
-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말레이시아(평균적으로 약 66%)였지만 2010년 이후 싱가포르로 전환(평균적으로 약 80% 수준)

- 아세안 국가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1990년 대 아세안의 對한국 제조업 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44%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16.2%로 축소
 - 반면 서비스업은 투자 비중은 동기간 평균적으로 50.8%에서 83.2%로 증가
 - 아세안 국가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를 보면, 2010년 이후 금융 및 보험과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의 對한국 투자 규모 추이 > (천만달러) < 아세안 지역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신고금액 기준.

③ 인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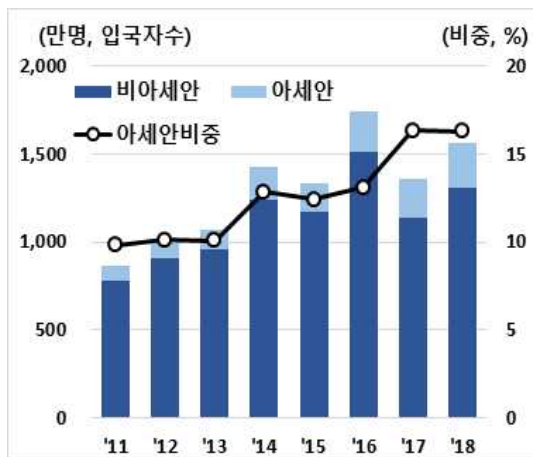
○ (출입국) 2011년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출입국 교류는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입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 국내 입국 외국인 중 아세안 국적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수는 2010년 777.5만 명에서 2018년 1,563.1만 명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함
 - 아세안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69.4만 명에서 254.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세안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16.3%로 확대됨⁴⁾

- 국내 출국 내국인 중 아세안국가에 방문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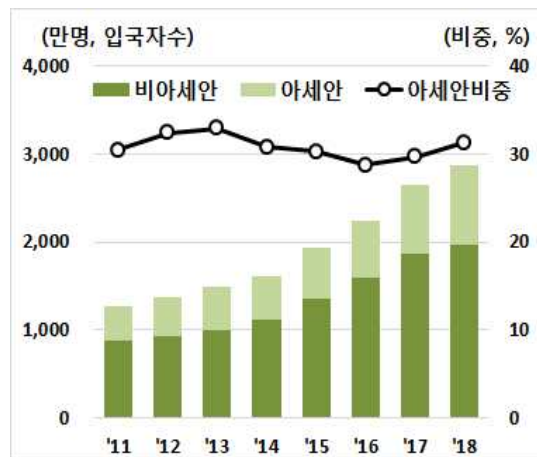
-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수는 2010년 1,248.8만 명에서 2018년 2,869.6만 명으로 연평균 4.7%로 증가함
- 아세안국가에 방문하는 내국인은 같은 기간 329.9만 명에서 897.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세안국가 방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유지됨⁵⁾

< 국내 입국 외국인수 >



자료 : 통계청.

< 국내 출국 내국인수 >



자료 : 한국관광공사.

○ (취업) 2013년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취업 교류는 아세안 국적자의 국내 취업이 대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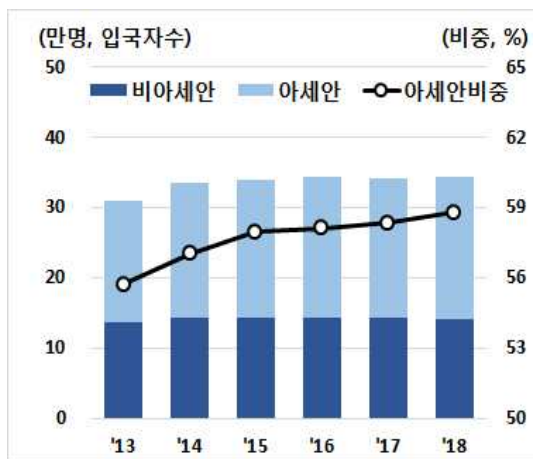
- 국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아세안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상회하는 모습을 유지

- 국내로 취업하는 외국인수(E비자 기준)는 2013년 30.9만 명에서 2018년 34.3만 명으로 연평균 2.2%로 증가함
- 아세안 국적을 보유한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 17.2만 명에서 20.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세안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5.7%에서 58.8%로 소폭 확대되는 모습임

4)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2018년 기준 태국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5)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2018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하는 내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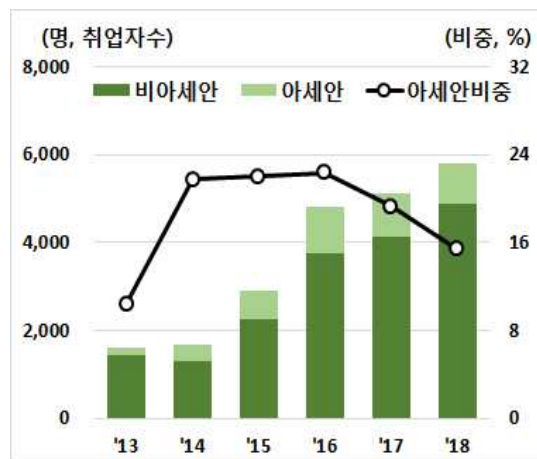
- 내국인이 아세안국가에 취업하는 인원은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전체 해외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 해외로 취업하는 내국인수는 2013년 1,607명에서 2018년 5,783만 명으로 연평균 29.2%로 증가함
 - 아세안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내국인은 같은 기간 167명에서 891명으로 증가함

< 아세안 국적자 국내 취업자수 >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 국내 외국인 취업자수 통계는 저량 (Stock) 자료임.

< 내국민 아세안 취업자수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 해외 내국민 취업자수 통계는 저량 (Stock)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유량 (Flow) 자료를 이용함.

④ 경제 교류 개선 사항

○ (교역) 높은 무역수지 흑자 의존도 및 베트남에 편중된 교역

-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아세안과의 교역에 좌우되며 對아세안 교역은 한 국가에 좌우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중 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 비중은 2018년 60%에 달함
 -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 중 對베트남 교역 비중은 2018년 42.7%에 달함

6) 본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해외취업을 연수 및 알선을 받고 아세안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취업한 인원을 뜻하여 전체 해외취업자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 이들 국가 경제가 부진할 경우 수입 수요 위축이 발생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투자)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

- 아세안을 동일 시장이 아닌 10개국의 개별 시장으로 보고 국가별 맞춤형 투자 전략이 필요하나 對 아세안 해외직접 투자는 베트남,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
 - 對 아세안 투자 중 베트남 비중은 2018년 기준 51.5% 수준인 반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은 2%를 내외 수준에 불과

○ (인적교류) 한·아세안간 인적교류는 아세안에 대한 내국인의 관광수요와 국내의 외국인 인력수요에 치중

- 한·아세안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관광, 비숙련노동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인적교류만 확대되는 실정
 - 2018년 기준 국내로 취업하는 아세안 국적의 외국인(E비자 기준)은 약 20.2만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대부분이 비전문취업(90.0%), 선원취업(6.93%)에 치중되어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아세안으로의 인적교류는 대부분 관광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취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4. 포스트 '한·아세안 30년'이 나아갈 길

○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경제 회복의 활력을 더해줄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첫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한국의 장점 활용 및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아세안은 R&D 투자 등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IoT, 공정자동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선진 기술 및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
 - 아세안에서 환영받고 있는 한류의 경제 자산화, 일본·중국과의 차별화된 협력 모델 등을 통한 새로운 단계의 경제 협력 비전을 공유
- 둘째, 아세안 전체적인 시장 및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장 공략 전략 수립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저임금에 기반한 생산기지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중산층 증가에 기반한 내수 소비시장 확대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공략
 - 또한, 각국의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배경(지리, 인종, 종교,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에 최적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
 - 소득 증가 이후 발생할 주요 수요 부문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시장맞춤형 진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셋째, 아세안과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 교류의 안전성을 강화
 -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자의 인권 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요구
 - 아세안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아세안 각국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 넷째,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교역 및 투자 경향을 완화해야 한다.
- 성장세가 강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 중심으로 투자 및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해당국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 분산도 고려해야 함

- 사업 기회의 선점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리스크를 감내하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기회 요인이 부재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회 요인 발굴에 적극 노력
- 향후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HRI**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오준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민지원 연구위원 (2072-6211, jwmin@hri.co.kr)

류승희 연구위원 (2072-6217, shryu@hri.co.kr)

신유란 연구위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